AFTER TALE

2022.12.30. 19:00-21:00

관악구 앰프티폴더스

애프터 토크 : 웹 전시는 어쩜 이리도 만만한가?

박지호

홍성우

김선형

나희연

양수빈

김혜민

배준형

여기는 포탈(portal)입니다.

6	서문
8	자기소개
10	fio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요?
15	만만함의 척도는 어땠는지 과정별 혹은 개체별로 설명하기
21	fio, 다음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22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
32	요즘 가장 빠져 있는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38	만만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에 흡수되는 걸까요?
46	웹 전시장에서 작품을 훔치는 일련의 경험이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나요?
49	fio는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나, 그 의도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1	2023년에 가장 하고 싶은 작업은 혹은 할 계획인 작업은?
54	관객들의 답변을 듣고 fio press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55	Notice
57	당첨자의 방명록
59	지호의 대외비 모음

박스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탈 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애프터 토크를 엿듣고 싶다면?

서문 00:00

자기소개 03:05

fio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요? 07:07

만만함의 척도는 어땠는지 과정별 혹은 개체별로 설명하기 18:31

fio, 다음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30:25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 32:24

요즘 가장 빠져 있는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53:07

만만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에 흡수되는 걸까요? 01:07:57

웹 전시장에서 작품을 훔치는 일련의 경험이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나요? 01:25:04

fio는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나, 그 의도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01:31:51

2023년에 가장 하고 싶은 작업은 혹은 할 계획인 작업은? 01:36:24

관객들의 답변을 듣고 fio press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01:40:57

박지호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말을 읽고 그 다음 순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문

안녕하세요 《STANDUP!》 애프터 토크에 참여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진행을 맡게 된 fio 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연말 추억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STANDUP!》은 창작집단 fio에서 기획한 하이-코미디 쇼입니다. 이 전시는 겉으로는 Forest Yang의 개인전인 척 구라를 치고 있지만, 실은 실시간으로 작품이 도난당하는 지극히 취약한 웹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이는 "실물 전시에 비해 웹 전시는 어쩜 이리도 만만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답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궁금하다면 발제문을 읽고 오십시오.

오늘 애프터토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린 이제부터 쌉소리를 늘어놓을 예정이긴 하지만, 이 쌉소리는 그냥 수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입놀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비평 활동'에 포섭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비평은 작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평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작품은 나오자마자 사라지고 말죠. 반대로 비평이 존재한다면 작품은 그 말이 힘을 잃기 전까지 생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명감으로 억지로 어려운 말 써가며 작품에 대해 논하고.. 그러지는 맙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말이 힘을 잃습니다. 그저 오늘은 하고 싶은 말 재미있게 나눕시다. 그래야 말이 오래 삽니다.

방식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준비해오셨죠. 질문을 이곳 종이 띠에 적은 후에 한 곳에 모읍시다. 그런 후 저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나 뽑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역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손들고 언제든 끼어들기 가능합니다.

참, 이 이야기는 편집 과정을 거쳐 인터뷰집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실명 사용이 꺼려지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지호 제가 뽑을 질문은 당연하게도... 자기소개! 저부터 소개해 볼게요.

자기소개

박지호 저는 미학과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 쓰기'라는 단어로 제 작업을 정의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번역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번역'은 원본을 충실히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작업은 원본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새로 말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t1과 페이커의 오랜 팬입니다. 끝입니다.

김선형 저는 김선형이고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저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경험적인 소비에 가장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적인 소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양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빈이고요. 저도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는 흥미로운 기획이 곁들여진 시각 언어 작업을 즐겨서 보고, 즐겨 하려고 합니다.

배준형 저는 배준형이고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운드에 기반하여 플레이어를 시각화하는 작업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건 책 만드는 일, 이야기를 좀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하는가, 입니다. 요새 저 자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맥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좀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희연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나희연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헛소리입니다. 언젠간 헛소리가 큰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작업을 헛소리에서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굳어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개념 전복하는 작업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홍성우이고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쓸데없는 노력을 들여서 단순하고 재밌는 걸 만드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감사합니다.

김선형 제가 지금 뽑으면 될까요?
저는... 이거 할게요.

박지호 어머

김선형 ‘fio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요?’

fio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요?

김선형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예시를 되게 다양하게 수빈 님이 써주셨는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가 저는 제일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거를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fio에서는 그런 작업을 항상 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인스타로든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김선형 예전에 첫 번째로 했던 전시도 봤었는데,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수빈 어.. 저도? 오... 저 일단 패스할래요 (웃음)

배준형 저는 fio press를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작업 자체가 제 취향이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fio press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전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뜻깊게 보고 있습니다. 잭슨홍 작가와 비슷한 포지션의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래에서 이런 작업을 추구하는 단체가 잘 없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저는 이번 작업 보면서 되게 발칙하다고 생각했는데, 멘트도 그렇고 그 전시회 전반적인 기획도 그렇고 재밌어서. 근데 우연히 이번에 그 디자인 프레스 블로그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스치프라는 미국 예술 집단에 대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fio의 작업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접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것도 사대주의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뭔가 fio의 앞으로의 행보가 그런 식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고유의 fio만의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미스치프가 어떤 작업이라고 꼬집어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디자인이 결국 상업성이랑 되게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이런 되게 근사한 디자인을 이야기랑 좀 결부시켜서 너희한테 팔 거다~ 우리 이렇게 되게 멋진 걸 만들고 이런 걸 한정판으로 판매할 거다~ 식으로 웹사이트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인상은 좀 발칙하다였고 두 번째 인상으로는 그런 단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희연 저희끼리 막 얘기하다가 나왔던 단어 중에 좀 흥미로워서 계속 기억하는 건 '홍건적 무브먼트'... 아니면 '작당 모의'하는 집단들, 낄낄거리면서...? '낄낄'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낄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배준형 그러게. 궁금했어요. 왜 홍건적이었어요?

나희연 왜 홍건적이냐고요?

박지호 흥건적이라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나희연 ...음 일단은 한국인이라서...?
뭔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

박지호 맞아, 반항적인 느낌.

양수빈 토속적인 어감도 좋은 거 아니었나요?

나희연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홍성우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유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유머 템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박지호 부담되네요.

홍성우 이게 곱씹어서 나온 건지,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건 유머가 작용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서로 받아치면서 티키타카로 만든 유머인지... 그래서 이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나희연 저희 회의 시간이 궁금하셨군요. 저는 티키타카가 제일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쏩- 유머 코드가 맞긴 맞는데 이게 공대생들이랑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를 좀 나누긴 했지..요?

박지호 이거는 대외비로 해야..? (웃음)

박지호 제가 느끼는 인상이라... 저한테는 당연히 소중하죠. 그리고 기대돼요. 계속 어디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떤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기대되고 특히
2023년이 매우 매우 기대되는 집단입니다.

양수빈 제가 초반에 느꼈던 인상은 2022년 초반에는 '지호 씨의 꿈의 장이다'가 컸어요.
지호 씨의 비전과 궁금함을 해소해보고자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지호 그죠.

양수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상이 컸고, 은연중에 깔려 있는 인상은 꾸러기예요. 지호, 희연 두 분이 사전조사를 엄청 열심히 똑똑하게 하는 반면에 회의할 때는 되게 꾸러기 같은 것만 좋아해요. (웃음)
그래서 지금 진하게 남아 있는 인상은 꾸러기!

박지호 두 번째 질문 그럼 이대로 마무리?

배준형 어떤 꿈을 꾸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박지호 아, 그건 내용이 긴데 지금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럼..
저의 꿈은 원대합니다.

fio를 만들 때부터 생각했던 저의 뚜렷한 비전은,
다른 형식의 교육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즐겁게 스스로
알아가고, 알게 된 것은 그냥 재밌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근데 그 재미가 결과물에도 묻어나와서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잘
구현해내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꼭 지금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박지호 하지만 동시에 첨언할 말은, 그래서 더더욱 이 꿈을

의식하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빈 씨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집단이 제 개인의 꿈의 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 어쨌건 제 꿈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저도 욕심을 지닌 사람이다보니까 꿈을 자꾸 펼치려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꿈 같은 건 의식하지 않고 당장에 같이 재밌는 걸 하고 싶습니다.

배준형 말씀에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질문드립니다. 같이 공부해나가는 장이 fio press 멤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객들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지호 저는 레이어를 3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레이어는 우리 집단 내부, 2차 레이어는 우리 집단과 협업하는 사람들, 3차 레이어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감을 얻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준형 알겠습니다.

박지호 (웃음)

배준형 막간을 이용해... 방금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한족 반란군이던데... 어떻게 된 일인 건지

박지호 하하... 우리 역사 의식에 문제가...

나희연 어머... 짧은 역사지식...

나희연 번복하겠습니다.

나희연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단어...

양수빈 언니 질문 지금 해도 되려나 이거?

나희연 좋아

양수빈 그러면 저는 '웹 전시장에서 작품을 훔치는 일련의 경험이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는지'

박지호 본인부터 답변하시죠.

양수빈 아이 그러면 저 지금 바꿀래요. 희연 언니가 적은 다른 질문. '만만함의 척도는 어땠는지 과정별 혹은 개체별로 설명하기' (웃음)

만만함의 척도는 어땠는지 과정별 혹은 개체별로 설명하기

나희연 과정별로 혹은 개체별로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그냥 어떤 지점이 만만하거나 만만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수빈 사실 나는 생산자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완전 관객의 입장에서 이 척도를 매기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개발? 만만하지 않았고, 기획? 꽤나 만만했고, 왜냐하면 1~2주 만에 후루룩 회의 한두 번 만에 완성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고르기랑 제목 짓기를 제가 했는데 100개 하기 만만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가볍게 던지고 다른 분 답변 들어볼게요.

나희연 좋아요.

배준형 저는 일단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자마자 먼저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하면 구조가 어떤지 보이니까요.

(놀람) (놀람) (놀람)

배준형 그리고 제가 이 전시를 공유한 내용을 보고 접속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시 보기를 포기했다고 연락해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디서 포기했냐면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할 때 자신의 계정을 조작할 모든 권한을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개발자인 친구들은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면 fio press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권한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가 만만하냐고 하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나(웃음). 저는 설마 희연 씨가 제 정보를 훔치진 않겠지라는 믿음으로 접속했습니다...

나희연 저희 그런 거 못해요.

박지호 너무 억울했어요.

나희연 복사를 어떻게 뜨는 거지...

배준형 권한을 넘겨준 상태에서 개발자 콘솔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시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다 보이더군요. 이 전시에 얼마나 관객들이 오고 있고 어느 시간대에 오는 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만만함의 척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웹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만만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max까지 만만하게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호 마음대로 다 조작할 수는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배준형 마음 먹으면 그럴 수 있겠죠.

김혜민 저는 일단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원래 비율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4k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서 한 네 번인가 4트 했어요. 4트.

나희연 오 4트?

김혜민 오 4트 적은 거야?

나희연 10번 하다가 못 들어온 사람도 있어...

김혜민 나 손에 땀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만만하지 않았고. 근데 그림 훔치는 부분은 경찰 눈을 피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 경찰이 뭔지 몰라서 일단 그냥 다 훔치고 나서 보니까 그 위에 아이콘으로 경찰 캐릭터가 갑자기 제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 놀라서 방명록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그 입장 과정이 제일 만만하지 않았고...

배준형 첨언할 게 생각났어요. 제가 이 전시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인스타에 올린 영상을 보셨나요. 제가 이 전시에 접속하다가 팝업 때문에 막혀서 고통받았던 건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나희연 영상 공유해 드린 거

배준형 다른 컴퓨터에서 전시장에 입장할 때 그 고통을 금세 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즉, 제가 이 전시에서 겪은 고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대했다는 거죠.

박지호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만만함.

나희연 저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지점들은 정말 딱 저런 유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입장도 우회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김혜민 이게 안 돼서요?

나희연 스크롤 내리는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좀 멀리 돌아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만만함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빈틈들을 유저들이 알아서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김혜민 그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도둑이 아닐까.

나희연 입장권도 안 끊고.

배준형 스프레드시트 링크 복사해두면 다시 접속할 수 있잖아요.

나희연 링크 복사... 아???
아닐 텐데?

배준형 그거 1일차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확실히 접속되었고 2일차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나희연 권한 바뀌면 링크 바뀌어요?

양수빈 그래서 VIP 링크가

박지호 우리 VIP 링크 바로 입장하는 링크 있었잖아요.

나희연 그거 말고 우리가 권한을 다 제한해도 입장할 수 있었다고요?

박지호 아 그때는 안 되죠.

나희연 아아 그건 줄 알았어요.

홍성우 저는 제가 오히려 이 전시를 만만치 않게 만들었던 게, 보려고 도착한 시간이 마감 5분 전이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만만치 않게 만들었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입장하는 것 자체도 이게
정신적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신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아서 열심히 도전했고, 그 마음가짐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는데 이게 내가 놓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만만치 않음을 따로 만들어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박지호 저는 만만함의 척도가 전시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컴퓨터를 잘 조작하느냐에 달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형 저는 제가 썼던 질문이랑도 약간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전시에 대한 인상이 되게 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입장해 줄 서는 거를 연상시키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실제로 내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 경험이 계속 오버랩 되면서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랑
이렇게 마우스 게임을 하는 거를 비교해보면 더 할
나위 없이 이 게임이 너무 대수로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단순히 이 화면 안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가 되게 압도하는 시선에서 이렇게
단순히 조작만으로 내가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 오프라인 경험에
비해서는 되게 만만하게 느껴졌다는 게 강했고...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보면 되게 작품 훔치는 것도 되게
만만하게 잘 했거든요. 이지하게 잘 훔쳤기 때문에
만만하게 잘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지호 실물이랑 비교하는 반응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김선형 말풍선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양수빈 저희가 틈 날 때마다 유머를 쳤잖아요.
전시에서나 인스타 홍보 게시글에서나... 그런 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좀 더 만만하게 보기에 한 몫
했나요? 만만하진 않았나요?

김혜민 만만하다랑은 다른 류의 제가 앞서 말했던 발칙하다는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배준형 유교 사회의 가치관에 어긋난다.

박지호 아하.

배준형 그래서 너무 좋다.

양수빈 그리 외설적이지 않았는데.

박지호 버릇이 없다.

배준형 한국에서는 사르카즘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어딜 감히'

박지호 어딜 감히 독자한테.

나희연 솔의 눈을 맥이고

박지호 근데 솔의 눈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김선형 시원하고 맛있는데.

박지호 그러니까요.

양수빈 본인도 이번에 촬영하다가 스며든 거면서.

박지호 제가 촬영하면서 한 네 캔인가... 세 캔인가...
맛있더라고요.

박지호 여하튼 다음 질문.

배준형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그냥 아무 거나 뽑아주세요.

박지호 그러면 저는 이 글씨가 예뻐 보여서....

배준형 ‘fio에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 나온 다음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fio, 다음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박지호 우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배준형 저는 답변할 수 없는 거니까.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박지호 이거는 빨리 우리가 얘기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뽑아주시죠. 희연 씨가 뽑아주시죠.
제가 답변을 할까요?
저희는 두 개를 일단 킵 해놓고 하나를 또 새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고... 얘기해도 되겠죠?

양수빈 아주 살짝만

박지호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진행할 프로젝트는 ‘디자인 졸업 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볼 거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걸 좀 유머 있게 풀어나가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나희연 잠깐 어려운 거 찍먹했다 갈까요?

양수빈 핑크(두려워하며)

배준형 아 제 거요?

배준형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 웹 3.0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개개인에게 알맞은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질문은 fio press 팀이 웹 3.0 개념을 고려하여 이 전시를 기획하셨을지 궁금해서 적기도 했어요.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

양수빈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배준형 그렇군요.

박지호 그래요? 저는 했는데.

나희연 그래요? 공유 좀 해주시지

배준형 말씀해 주시죠.

양수빈 대외비?

배준형 대외비에요?

나희연 우리한테도?

박지호 쉿...

배준형 저는 웹 3.0 시대에서는 전시가 서비스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시라는 라벨을 붙이고 있지만 서비스로서 웹 3.0에서의 이슈를 비평하는 형태이지 않을까요? 이런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박지호 정리를 하자면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전시와 더불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준형 네 이미 현실에서 웹과 현실이 완전히 납작하게 붙어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통적인 '웹 전시'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서비스 그 자체가 웹 3.0을 비평하는 작품이 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박지호 (실물 전시와) 웹 전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차피 전시라는 건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웹 환경 자체가 어떤 작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배준형 네. 시스템 그 자체를 애플리케이션 하는 어떤 서비스. 웹과 현실이 초연결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인터넷 아트이잖아요? 결국 주류가 되지 못했던 넷아트는 형식 실험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웹도 하나의 실재계라 된 오늘의 시점에서 웹 3.0을 비평하려면 전시가 곧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자 답이긴 했어요.

김혜민 저 말하면 되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좀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저희 졸업 전시나 어떤 그런 디자인을 다루는

전시회에 가보면 개인 작품의 프로토타입이 그냥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아카이브에서 보여주는 걸 웹 전시라고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프로토타입과 전시 사이에 어떤 경계가 좀 허물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토 타입 자체, 혹은 뭐 지금 웹사이트에 많이 전개되고 있는 어떤 프로모션 페이지들, 브랜드의 페이지들 그거 자체가 또 그 전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전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또 되게 모호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네요.

나희연 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홍성우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단편적으로 여쭤보면, 웹 3.0 시대라는 걸 좀 더 개인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배준형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인 맞춤이 인공지능에 의해 서비스될 것이라는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홍성우 저는 사실 전시라는 것과 개인 맞춤형이라는 게 좀 상반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흔히 지금 인공지능 개인 맞춤을 해주는 것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에서 추천 영상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많은 영상을 볼수록 내가 좋아할 것들을 딱 깔아놔 주는 게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약간 왜 이런 걸 추천해주지의 나쁘다가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정리해줘서 너무 기분 나쁘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인지시켜줘서 좀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더 명확히 정의할수록 대중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게 더 명확히 보인다는 점이, 그게 개인 맞춤은 대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뜯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은 걸 보고 이제 뭐 각자 해석은 달라도 적어도 같은 걸 인지해야 하는 전시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보여줄게라는 성질의 그런 개인 맞춤형이 과연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전시는 정말 볼 사람들이 보는 자기만 볼 수 있는 게 그의 전시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호 그래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웹 3.0 시대의 웹 전시가)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서 서비스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분명히 근데 그런 시도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의 웹 전시도 필사적으로 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때려 부으려고 하는, 일부러 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웹 3.0이 보편화된다면 분명 말씀해주신 시도들이 성행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럴수록 실물 전시와 웹 전시가 더 많이 차이 날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실물 전시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은 말씀해 주신 개인화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 같다는 직감도 들어요.

박지호 한편으로 이거는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들은 내용을 전하자면. 제 친구는 웹 3.0의 주요한 점 중 하나로 서버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작품을 소유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 우리가 그 글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네이버라는 커다란 창고에다가 의탁해놓은 거고 실은 그 데이터는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탈중앙화의 시대가 오면 개인이 진짜로 작품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온전한 개인의 소유물을 모으는 장으로서 웹 전시장이

개설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배준형 그럼 궁금한 게 지호 님께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중론적으로 봤을 때 전시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지호 그러게요. 그게 뭘까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것도 전시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정리를 좀 하자면...

박지호 ...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지금은 개인 전시라고 해도 작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동감하든지 동감하지 않던지 관람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 담론을 형성해내고 큰 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식이니까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형 저는 질문 자체가 조금 약간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다른 분들 답변 듣는 걸로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주자인 수빈, 당황한다.)

박지호 벼락치기 ㅋㅋㅋ.

양수빈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체리장 유튜브 채널이 생각났어요.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에는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어서, 친구가 이걸 소개해줬을 때 딱 보고 '이거 뭐야 사이비야?'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친구 소개 덕에 봤지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이 떠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인공지능의 입맛에 매개되기 위해서 (입맛에 맞추고자) 시작한 작업이 많아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체 기술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상향식 전시랑도 맞닿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준형 상향식 전시가 뭔가요?

양수빈 설명해 주세요.

나희연 하의상달, 그러니까 지금의 대부분의 전시는 디렉터...?

박지호 예 큐레이터.

나희연 큐레이터! 큐레이터가 작업을 아카이브 하고 그것들을 선별을 해서 각색하거나 아니면 군집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상의하달 식으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식으로 전시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뭔가를 선별하고 분류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드는 전시를 저희는 상향식 전시라고 얘기했어요.

배준형 아 바텀업

나희연 바텀업

배준형 그럼 궁금한 게 이 전시에서는 그런 구조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장치가 있었나요?

나희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냐고요?

박지호 없어요.

배준형 없죠? 그 장치를 만드는게 넥스트 스텝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 전시에서 그런 추구점이 드러나는 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지호 음. 우리가 그것을 미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배준형 저는 사실 그걸 의도한 것인가 싶어서 열심히 인스타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양수빈 그래요 어떤 점이요?

배준형 네?

양수빈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배준형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졌냐고요? 이 전시는 관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고 제시된 이미지들은 의미 없는 기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포인트는 관객이 텅빈 기호들을 캡처해서 SNS에 올려 공유하면 그걸 본 또 다른 이들이 전시에 유입되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 피드 올렸고요. 그에 반응해서 제 친구들이 전시를 보는 것을 보고 "내 의도대로 되었군!"이라고 생각했어요(웃음)

박지호 그건 맞아요.

나희연 그건 맞아요.

나희연 저희가 SNS랑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하고 계속 캡처 같은 것들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도 그렇게 이미지를 매개로 확장하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상향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보류했었고, 다음 프로젝트로 얘기를 해보자고 미뤘던 것 같아요.

나희연 그렇습니다..

배준형 네

나희연 하지만 정확히 파악해 주셨네요

배준형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공유했습니다.

나희연 그냥 '관객 참여 = 상향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향식이라는 키워드를 프로젝트로 풀 때는 아마 참여 그 너머의 무언가를 조금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많이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고...

배준형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스프레드시트 아래에 히트맵 깔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문 곳과 클릭한 장소를 알아내고요. 그 결과를 이상형 월드컵처럼 순위로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면...

나희연 (감탄) 우와 기술력이 된다면...!

나희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순찰 중 아이디로 들어가서 관찰하고... '어 이 분 움직인다. 훔친다'

박지호 저희 원래는 메일 보내주는 것도 실시간으로 손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희연 얘 훔쳤다. 보내자.

박지호 그거 아시죠. 뭐라고 하죠. 뒤에 사람 숨어있는 거.

양수빈 자판기?

박지호 자동인 척하는 수동.

나희연 하지만 그건 다행히 아니에요.

나희연 저로 넘어온건가요?
지금 생각들이 약간 추상적이고 잘려진 키워드들만 존재하는데...
저도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쎄요, 그냥 떠오르는 키워드들만 막 뱉자면
'decentralized'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에 맞춰서
그렇게 파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다시 그 파편화된
아이들에서 무언가를 선별하고 거기서 다시 맥락을
만드는 컬렉터의 힘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박지호 그러니까 또 첨언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잖아요.

나희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컬렉터나 큐레이터의 일과 디자이너의 일이 꽤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디자이너가 이쪽 일을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 프로젝트, 이 집단에 들어온 거기도 하거든요.

배준형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디자이너로서의 직능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된 것 같아요?

나희연 그걸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배준형 그럼 아까처럼 추상화된 단어를 던져주세요.

나희연 디자이너 직능.. 아하..

양수빈 쌉소리 오케이.

나희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발현됐는지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 어느 부분에서 맞닿아 있을까 정도를 생각해 보면 선별도 선별이지만 각색하는 과정?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남의 얘기를 듣고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서 듣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도 각색의 일이고 그게 디자이너이고 동시에 에디터나 큐레이터의 일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봤어요.

배준형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파트였을지?

나희연 구체적인 사례,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전반적인 스토리텔링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난을 하고 싶어 할지 그 시퀀스는 어떻게 될지 뭐로 받으면 혹은 어떤 문구로 받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낄낄거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전시를 연 게 아니잖아요.
가상의 전시, 가상의 작가랑 가상의 작업을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서 만든 거라서 그 과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김선형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쌉소리는… 전시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서 웹 전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카이빙의 형태가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웹 전시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명확한 타깃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웹 3.0 시대라고 하면 또 개별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시에서도 목표하는 타깃이 되게 두드러지는 전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배준형 타깃이 두드러진다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김선형 그 전시가 원하는 관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배준형 아 전시가 원하는 관객이…? 관객이 원하는 전시가 아니라…

김선형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배준형 재밌다.

박지호 그럼 이 질문은 여기서 닫을까요.

박지호 좋습니다. 다음 질문 골라주시죠

김혜민 저는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쓴 것 중에 요즘 가장 빠져 있는 혹은 좀 마음에 드는 (행동도 괜찮고 행동과 관련된 단어도 괜찮고 그냥 표현도 괜찮고) 단어가 있다면? 저는 요새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낭만이라는 단어에 되게 빠져 있어요.

요즘 가장 빠져 있는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나희연 저 낭만으로 100분 토론 가능

김혜민 요새 이 낭만이라는 게 뭘까 뭐가 어떤 것들을 낭만으로 만드는 걸 생각을 계속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뭔가 드는 생각은... 어쩌면 낭만을 재미없게 푸는 것 같긴 한데... 좀 효율적이지 않은 거, 최대한 어떤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낭만 하면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주변에서 되게 낭만적이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되게 저 단어에 꽂혀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작업들이 어쩌면 저기에 되게 가까운 낭만... 진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랑 연관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단어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박지호 제일 낭만적이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혜민 여기서요?

박지호 아니요, 아니요..

김혜민 낭만적이어 보이는 사람...?

박지호 나의 낭만 선생님 같은...

김혜민 정말 어려운데.

김혜민 저는 아까 페이커 선수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길 듣고 그분 관련해서도 이 단어를 되게
습관적으로 연결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주는...

박지호 어허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김혜민 진짜 진짜예요. 거기서 주는 페이에 굴하지 않고
아직도 한국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게 어쩌면 낭만이
아닐까 그것도 낭만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박지호 연봉 150억을 거절하고.

양수빈 이야

나희연 150억 와...

박지호 (페이커 선수) 감사합니다.

김혜민 뜻밖의 감사를 받은...

김혜민 네 그래서, 꽂혀 있는 단어가 궁금했어요.

나희연 낭만 받고... 사실 요즘은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전에 있었던 단어였는데... 저는 또 낭만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 낭만을 그 친구에게 학습한

사람이라서요.

나희연 아무튼 그 친구가 저에게 '너는 사랑의 멋짐을 몰라서 너무 불쌍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멋짐은 뭐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랑의 멋짐이 뭔지 정보 수집해보겠습니다.

박지호 사랑의 멋짐이란 뭘까요.

나희연 그 짤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너무 불쌍해.

나희연 어디 출처였죠.

배준형 애니메이션 웨딩피치, 하이라이트에요.

김선형 세일러문.

박지호 답변이 '닥쳐'네요.

김혜민 다음이 명장면이네.

박지호 여하튼 사랑이 멋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나요?

나희연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양수빈 '닥쳐'

홍성우 요즘 가장 빠져 있는 단어, 행동은...
사실 요즘 종강을 한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빠져 있는 거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시간이 생기니까 일부러 상식적인 걸 찾아서 그거랑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희연 와 궁금하다.

박지호 그게 낭만 아닐까.

양수빈 어떻게 해요. 뭐 하세요.
밥을 막 이상하게 먹는 건가.

홍성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학교 과제물도 왠지 아무도 안 할 짓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공개하지 싶은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고, 지금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것 중에 상식적으로 왜 하니라는 생각이 드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그거였는데, '시간이 남아야지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계획을 짜서 그걸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정의되는 거를 좀 그냥 안 받아들일래 하고서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요즘 재밌어서 열심히 시간 낭비 중인 거를 좀 둘러둘러 말하게 되었네요.

박지호 그렇구나.

박지호 전가요? 저는... 꽂혀 있는 단어? 음... "왜지?"
"왜지?"이지 않을까요. "왜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랑 연결돼서 하는 단어는 '구도'인 것 같아요. 저 사람 구도를 어떻게 짜고 있지.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하는 구도가 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구도는 뭘까. 나는 어떤 구도에서 저 구도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희연 저의랑은 살짝 다른 건가요?

박지호 우리요...?

나희연 저의 저의.

박지호 속셈?

박지호 그렇다기보다는... 저 사람한테는 이게 진실인데 그와 반목하는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그런 요상한 구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도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희연 사례 하나

박지호 이거는 근데 오프더 레코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컨대

- - - - (오프더레코드) - - - -

김선형 저는 최근에 종강하고 나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 정주행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화 반전이 많은 그런 형식의 드라마예요. 서술 구조가 되게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 되게 속이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계속 의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트릭이라는 주제에 계속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릭이라는 게 되게 한꺼번에 되게 단순한 조작이나 컨트롤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밌으면서도 위험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걸 의도적으로 내가 조종하는 것이 되게 재밌다.
내가 그걸 이끌리는 것도 재밌고 그걸 이끌린 나 자신을 약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됐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으로든 어떤 전시로든 혹은 어떤 콘텐츠 영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릭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양수빈 저는 지난 주쯤에 준비하던 시험이 끝나서 이제야 좀 자유로워졌는데 저도 성우 씨처럼 좀 부유하면서 여기저기 막 경험해보는 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고 요새 빠져있는 단어는 없고 빠져 있는 행동이 있는데, '연습'이에요.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즐기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참석자 전원 좋겠다

배준형 저한테 이 질문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 나열하자면... 이율 배반? 나 혼자 만년 청춘? "나 혼자 남더라도 계속 재밌게 살아야지" 같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제가 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거든요. 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현상을 봅니다. 함께 뛰어가던 친구들이 변해가는 과정도 보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늘 귀결되는 것 같아요.

박지호 이것도 낭만...

배준형 맞아요. 낭만이라는 거 저랑 되게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낭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혜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낭만의 정의라면 저도 낭만 속에 사는 걸 수도 있겠다 싶네요.

김혜민 이 모두가 낭만적이구나.

나희연 다음 질문 전가요?

김혜민 네

나희연 저는 이거, 만만함 혹은 유치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에 흡수되는 걸까요?

만만함 혹은 유치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에 흡수되는 걸까요?

나희연 '이를테면 바밤바 맛 고급 디저트.'

양수빈 진짜 잡아먹혔다.

나희연 진짜 잡아먹혔다. 저건.

박지호 근데 이거 엄... 아니 5대 5 아닌가요.

양수빈 오마카세에 가서 엄청 잘 차려진 파인다이닝 음식을 딱 먹었는데 바밤바맛.

박지호 그때는 또 바밤바인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통팥의 이...

양수빈 그러면 극단적으로 아폴로? (웃음)

나희연 다이닝 접시에 아폴로 하나 나오는 거야?

박지호 그거 이제 빨아 먹어야 해요?

양수빈 아니 아니, 비주얼은 고급진데 먹어보니까 아폴로고 쫀드기야.

박지호 그러면 뇌 속에서 뇌이징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희연 만만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이 흡수되는 걸까요. 답변 생각 안 하고 골라서...뭐가 있을까요 잡아먹힌 애들이...

양수빈 자꾸 브랜드 콜라보 사례만 떠올라요. 빙그레랑 어디 패션이랑...

나희연 빙그레랑 디올이랑 했다고 쳐요.

나희연 어디가 잡아 먹힐까 이런 거. 빙그레가 너무 세 일단은...

박지호 어렵다. 밸런스 게임 같은데.

양수빈 퓨마에서 포켓몬이랑 협업해서 퓨마 신발에 이상해씨 그려져 있고 그런 사례만 떠올라서 저는 만만함이 엄숙함을 완전 잘 잡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호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아주 고전적인 앤디 워홀 같은 사례도 있잖아요.

배준형 저도 앤디 워홀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멋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대통령도 당신도 같은 코카콜라를 먹는 전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희연 대중성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

박지호 대중성? 만만함? 어렵다 이 질문. 만만하지 않은 질문.

배준형 예를 들어 백종원 선생님이 소개하는 레시피들은 구현하기 만만한데요. 백종원 선생님이 그 만만한 레시피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유는 고급지잖아요?

박지호 그렇죠.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준형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호 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

나희연 뭔가 갑자기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쓰인 글이 떠올랐는데

박지호 민구홍 씨, 듣고 계신가요-?

나희연 '흥미로운 말에는 시시한 그래픽이 필요하다, 시시한 말에는 흥미로운 그래픽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전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양수빈 전략적이다.

김혜민 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중함이 달라지는...?

나희연 그렇죠... 그 두 개가 취사 선택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이거랑 저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저거는 취사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고급 디저트가 바밤바 맛을 내리라고 요리사가 의도하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문장이 떠올랐네요.

김혜민 어쩌면 개인이 어디에 더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나는 이걸 고급 디저트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진짜 뇌이징에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평소에 진짜 바밤바 광팬이라서 바밤바만 먹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먹었는데 이거 바밤바 맛인데 이렇게 가면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박지호 근데 그 사람은 또 바밤바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희연 만약에 저라면 저도 약간 뇌이징 되어서 바밤바지만 예쁘게 생긴 바밤바니까 난 예쁜 것에 투자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먹을 것 같긴 한데

배준형 바밤바랑 구조가 다른데 바밤바의 식감과 맛이 났다. 그건 그 자체로 고급 디저트예요. 어떻게 구현한 거야... 어케 했노?

나희연 만만함과 엄숙함으로 따졌을 때는...

배준형 만만함과 엄숙함은 양 끝에 있는 척도가 아니긴 하죠

박지호 그렇네요. 생각하고 보니까 의외로. 신기하다. 바밤바로 증명된...

나희연 글쎄요 저는 일단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양수빈 MC

홍성우 이게 제가 적은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멋있는 얘기들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홍성우 저는 사실 되게 그냥 어디서 최근에 보게 된 그림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밤 관련 디저트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먹고서 사람들이 이거 바밤바인데라는 생각을 해서다...

참석자 전원 진짜요? 오...

홍성우 이게 아까 해주셨던 말씀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종착점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고급 디저트가 거친 과정이 전혀 만만하지 않은 엄숙한 과정을 거치고 바밤바도 엄숙하겠죠... 근데

(웃음) (웃음) (웃음)

홍성우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 둘을 붙였을 때 바밤바를 떠올리는 순간, '이거는 진 거 아닌가?' 만약에 정말 엄숙함이 이겼더라면 우리가 먹는

바밤바는 대단하구나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이 전시 자체도 웹 전시와 현실 전시에서의 성질이 부딪혔을 때 웹 전시의 성질이... 결론을 잘 못 냈는데 어쨌든... 반대의 결과가 나온 해석이 나왔어야지 좀 더 엄숙함이 이겼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부딪혔을 때는 만만한 게 좀 이기기 쉽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례를 바밤바 맛 디저트로 들어봤습니다.

박지호 또 다르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 있다.

배준형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술을 공부하기 전, 개발만 하고 있을 때 웹으로 구현된 전시랑 현실 전시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현실 전시가 만만해 보였고 웹으로 한 거 보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뭐든 어떤 게 더 만만해 보이는가는 내가 저걸 구현하는 데 얼마나 리소스를 들여야하는지 알고 있냐가 중요할 거 같아요.

박지호 그렇겠다. 바밤바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밤바의 아성을 뛰어넘는 맛을 만든다는 게 힘든 줄 아니까.

박지호 그렇네요. 저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머릿수 싸움으로 가면 당연히 만만함이 이기겠죠? 여론 싸움이랄지. 그래서 밤 디저트가 성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김선형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좀 방향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났던 게 이제 명품 브랜드의 사례였어요.
톰 브라운과 버버리가 인식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한 이유가 그거를 사용하는 주 소비자 층이 이제 10대의 뭔가 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소비로 인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버버리 저런 애들도 입네! 약간 만만하네! 톰브라운 저런 애들도 입네! 만만하네!' 이런 의식을 갖게 돼서 되게 이미지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것도 되게 만만함의 그 엄숙함이 잡아먹힌 사례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만만하다는 게 생각보다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수빈 초반에 말을 던지긴 했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만만함과 엄숙함이 만나면 만만함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반추해 봤을 때 엄숙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데에도 동의해요. 설득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희연 저 갑자기 팔로잉 퀘스천이 생각나는데 해도 될까요?

박지호 네.

나희연 정말 엄숙해야만 하고 전시 설명문도 너무 어렵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무서운 전시에 가서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사진 막 열심히 찍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전시를 여전히 엄숙하다고 여길까요.
만만하게 보게 될까요?

박지호 찍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겠죠?

나희연 그렇겠죠?

양수빈 정부 초청행사 아니면 대학 면접장.

박지호 근데 그러면 또 갑자기 만만해지는 것 같기도..

양수빈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선형 서울대 면접 왔어여.

양수빈 그러고 면접 중에 사진 찍고 자랑하기.

김선형 아 서울대 만만하네.

나희연 (웃음) 만만함이 더 센 걸로...

나희연 답변 안 하신 분 있나요?

배준형 제가 답변 안 하긴 했는데... 저는 완전 만만함을 지지하는 파이긴 하거든요. 세상 모든 게 만만하지 않을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척하는 거 되게 웃겨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물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만만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사물에 깃든 엄숙함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물에 깃들어 있는 역사를 인식하고도 만만하게 여겨야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김혜민 저는 만만함이 흡수를 하는 건 아니고 힘이 좀 더 강해질 것 같긴 한데, 만만함이 강력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한 건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만한 것에 비해서 훨씬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어쩌면 소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만만함이 지금 더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혜민 근데 이게 흡수되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뭔가 저렇게 바밤바맛 고급 디저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밤바가 좀 임팩트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급 디저트라는 것도 인식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힘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호 재밌네요.

나희연 재밌는 질문이었네요.

배준형 후속 질문 하나 더 생각나요. 이 모임에서 왜 만만함과 엄숙함을 힘의 구도로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김혜민 흡수라는 말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만나서 한쪽에 흡수된다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

양수빈 저희가 발제문에 또 그런 식으로 보고 쓰기도 했어서

나희연 그렇죠. 기준이 다른 두 단어를 왜 데려왔지? 이렇게

양수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고급지게 힘 잡는 하이 패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시는 편이세요?

배준형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라고 봐요. 꿈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양수빈 아니꼽게 보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시는군요.

배준형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양수빈 그렇구나.

나희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질문 뽑아주세요.

홍성우 읽을까요?

박지호 네, 읽어주시겠어요?

홍성우 웹 전시장에서 작품을 훔치는 일련의 경험이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나요?

웹 전시장에서 작품을 훔치는 일련의 경험이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나요?

홍성우 어... 사실 저는 약간 전시를 준비해 준 분들께 말씀드리는 죄송하지만 취약성이라는 느낌보다는 훔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전 의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게 훔칠 수도 있는 거고 입장도 나의 기록을 재주네 이러니까 나는 이걸 최단 기간으로 훔쳐보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빠르게 시도해보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훔칠 수도 있고 훔쳐도 처벌도 없고 이게 가능함을 아니까 나는 이걸 단련하겠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취약하다'보다는 '이것도 가능해, 시도해봐!'라는 여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시를 망친다'보다는 '내가 더 잘 망칠 거야'라는 도전 의식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홍성우 만약에 내가 훔치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좀 더 취약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미 남들도 훔쳤다는 거 때문에 더 나도 빨리 훔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준형 훔치면 재밌는 문구를 줘. 참을 수 없지.

박지호 오히려 장려받는 느낌이었다. 그 보상들 때문에. 그런 말이죠.

홍성우 재밌기도 하고.

나희연 그렇죠. 우리가 고민했던 지점이죠. 재미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훔치게 만들어야 하지 않니?

박지호 맞아.

나희연 오히려 저희가 넣은 장치들이 역으로 만만하게 보이게끔 하는 장치들이 됐던 것 같다는 후일담을 나눴었죠.

박지호 그렇죠.

배준형 모든 소스를 다 공개하고 조작 가능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나희연 근데 또 알아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이거 혹시 100점 다 훔쳐도 되니 이랬던 친구도 있었고...

(웃음)

나희연 갑자기 로그 비집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배준형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해 둔 것도... 복사한 시트로 카피캣 전시를 하나 더 열어서 해프닝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까지만 하고 실행 안한 거거든요?

나희연 아, 저희 그것까지도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진짜 망했을 시, 삐용삐용 사태를 업로드해서 잠정적으로 휴관을 하고 내부를 고치는 시나리오도 만들었어요.

박지호 취약성을 연상시켰을까요. 음… 이거는 제가 답하기는 좀, 우리가 답하기는 좀… 넘어갑시다.

김선형 그때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저도 약간 성우 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재미있었고 내가 뭘 받았다. 기쁘다. 되게 내가 이걸 가졌구나 나의 것이 됐구나… 약간 소유에 대한 기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얻어냈구나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 취약한가…
그거 보면서 취약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훔치러 갔을 때 저는 되게 약간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려고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서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다 가져갔지, 되게 많은 사람에게 뺏겼구나 되게 취약하구나, 그런 부분에서 취약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많은 그림을 보고 훔쳐갈 그림을 고르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 뺏겨 버려서 정말 취약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준형 생각해보니 복사한 시트를 보안 때문에 전시 못 보겠다는 친구나 새벽에 전시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공유해줬어요. 이미 서브 전시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취약하냐고 하면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전시의 내용 자체가 취약함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김혜민 저도 사실 취약이라는 것보다는 재미에 좀 더 가까웠는데 그래서 이 이전 질문에 만만함이 이제 흡수했던 그거랑 좀 연결해서 재미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요소여서 오히려 취약하다는 개념을 잡아먹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박지호 재밌네요.

나희연 마지막, 지호 님께서 약간 sum-up할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박지호 원래 예고되어 있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거든요. fio는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나 그 의도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였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생각 안 나시면 잘 못 느꼈다고 해주셔도 돼요.

fio는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나.
그 의도가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선형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걸 보는 관객에게 뭔가 일깨우거나 깨우치게 하려고 뭘 한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뭐 해보세요, 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들을 되게 재밌게 전달하려는 거에서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본인들의 그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계속 작업으로 풀어낸다면 또 많은 분이 지켜봐주실 것 같아요.

배준형 그리고 저는 재밌게 본 점 중 하나는 이 전시가 지원사업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못받을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양수빈 오 그래요?

배준형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양수빈 아니요.

박지호 내려고 해도 카테고리에 맞는 게 없어요.

배준형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도권 지원사업의 카테고리는 기성세대가 만든 프레임이잖아요? 작업이 카테고리에 안 맞다는 건 장르를 새롭게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도가 통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fio press 팀이 3~4년은 더 해야 뭔가 결과가 있을 거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웃음)

박지호 아 좋죠. fio 더 열심히 해라~

김혜민 되게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을 그냥 딱 봤을 때 우리는 이거 재미있어서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 되게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앞에 말한 낭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아른거리는데 (웃음)

김혜민 낭만을 좇는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낭만의 흐름에 타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 의도가 충분히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홍성우 제가 의도를 전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들었던 느낌이, 이분들이 모였을 때 생기는 유머가 이렇게 새로운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적어도 많이 통한 것 같아서... 그게 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박지호 감사합니다. 와~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나희연 저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키워드로 빠르게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박지호 저도 좋아요. 읽어주시죠.

나희연 2023년에 가장 하고 싶은 작업은 혹은 할 계획인 작업은? 빠르게.

2023년에 가장 하고 싶은 작업은 혹은 할 계획인 작업은?

박지호 준비된 사람부터.

김혜민 저 질문 적었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제가 2018년에 제 글을 모아서 책을 간단히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책이랑 디자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리메이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준형 AI 피아니스트 시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형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곧 네덜란드에 가서 반 년을 살다 올 계획이라서 그 안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걸 토대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그걸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픽이나 책으로.

나희연 저는 졸전 전 마지막 방학이라서 인턴을 할까.. 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방학이니만큼 여한 없이 제일 재밌는 거를 하고 졸전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준형 졸전은 재미없는 거군요.

나희연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동기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그래서 이상한 거...! 요즘 열심히 끄적끄적이고 있는 거는 물방울로 만드는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김선형 어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 옛날에?

나희연 어. 그거 발전시키는 거 생각 중입니다.

양수빈 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어요.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건 레터링이거든요.
제가 아직 조형 능력을 많이 기르고 싶어 하는지라 이 부분을 부단히 연습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 작업들. 재미있어요.

박지호 저는 '보고서 보고서'라고, 제가 학교 때 쓴 글들을 모아서 그 글을 다시 첨삭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 최근에 피드백을 받기로 너 혼자 그거 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차라리 이 포맷을 시리즈화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잘 운영하는 게 저희 2023년 작업 목표입니다.

홍성우 사실 올해 하반기에 입대할 것 같아서 긴 계획을 못 세우고 있긴 한데 그나마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약간 의도 자체가 너무 상식에 맞지 않고 불순한 의도인데, 청소하기가 싫어서 먼지가 쌓인 거를 오브제로 쓸 수 있게 장난감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홍성우 부모님이 먼지 쌓인 걸 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건 제 의도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물을 하고 있어서 빨리 설치해서 당당히 외치고 싶어요.

참석자 전원 우와~

나희연 상용화 안되나요? 저도 하나 들이고 싶어요.

박지호 좋은 핑곗거리.

배준형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관객들의 답변을 듣고 fio press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표정의 미묘한 변화들이 너무 흥미로워서요.

박지호 저는 많은 힘을 얻어갑니다.

나희연 저도 저희가 재밌고 말면 사실 그것도 좋긴 한데 저희의 재미를 알아봐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나름 꽤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 걸 하고 있는 걸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양수빈 다들 저희가 만들어낸 유머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유머인데 좋게 봐주시니까 약간 무게감이...

나희연 부담 가지면 안돼.

박지호 이 샤라웃을 즐겨요. 여하튼 그렇군요.

그럼 이상으로 애프터 토크 모두 마칩니다. 2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진을 찍을까요?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Notice

12월 30일 19시 관악구 앰프티폴더스에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 「애프터토크: 웹 전시는 어쩜 이리도 만만한가」를 진행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낄낄거리는, 무척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편하게 오셔서 차 마시고 수다 떨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명록에 리뷰 남기기 [방명록 내용을 토대로 추첨을 통해 애프터 토크 초대권을 드립니다.]

모집인원
3-4명

당첨 시 준비물
발제문을 읽고 떠오른 아무 질문 1-2개,
당일 현장에서 공유해주세요.

참가비
7,777원 (새해에도 행운 가득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진행방법
애프터토크는 지난 10월에 업로드한 fio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전시가 종료되면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전시를 꾸몄는지 정리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2) 참여자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떠오른 질문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당일 현장에서 공유합니다.

3) 모든 질문을 한곳에 모아 '질문 더미'를 만듭니다.

4) 한 사람씩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질문 더미'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질문을 하나 뽑습니다.

5) 선택된 질문에 대하여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 할 얘기가 없으면 다음 사람이 다음 질문을 고르는 식으로 질문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쭉 진행합니다.

당첨자의 방명록

배준형 ???: 어떻습니까? 기분은
???: 최고...

김선형 너무 유쾌&재미있게 잘봤습니다!!!

김혜민 수전증이 있어서... 전시 입장하기가 참 힘들었읍니다... 보람이 있네요

홍성우 Forest Yang Project(으)로 이동 (안전하지 않음) / 역시 도둑질은 안전하지 않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지호의 대외비 모음

대외비,
어떤 정보나 자료가 외부에 흘러 나가거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상태.
애프터 토크에서 '대외비'를 여러 번 언급한 지호. 왜일까?
친절히 모아두었으니, 기회가 되면 은밀하게 물어보도록 하자.

fio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요?

나희연 저희 회의 시간이 궁금하셨군요. 저는 티키타카가 제일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쓥- 유머 코드가 맞긴 맞는데 이게 공대생들이랑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를 좀 나누긴 했지…요?

박지호 이거는 대외비로 해야..? (웃음)

'웹 3.0 시대의 웹 전시는 어떤 모습일까'

배준형 웹 3.0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개개인에게 알맞은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질문은 fio press 팀이 웹 3.0 개념을 고려하여 이 전시를 기획하셨을지 궁금해서 적기도 했어요.

양수빈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박지호 그래요? 저는 했는데.

나희연 그래요? 공유 좀 해주시지

배준형 말씀해 주시죠.

양수빈 대외비?

배준형 대외비에요?

나희연 우리한테도?

박지호 쉿…

요즘 가장 빠져 있는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박지호 그렇다기보다는… 저 사람한테는 이게 진실인데 그와 반목하는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그런 요상한 구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도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희연 사례 하나

박지호 이거는 오프더 레코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컨대…

- - - - (오프더레코드) - - - -

박지호 인터뷰 진행 및 참여

나희연 인터뷰 참여 및 편집

양수빈 인터뷰 참여 및 디자인